

「후쿠오카 코로나 경보」 발령과 향후 대응에 관하여

8월 5일

후쿠오카현

○7월 31일, 신규 확진자가 과거 최대인 170명에 달하는 등 감염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.

○또한 감감미 환자의 비율, 병상 가동률도 각각 50%를 넘었으며 중증, 중등증(산소호흡기가 필요한 단계)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.

○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, 금일 '후쿠오카 코로나 경보'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.

○이에 따라, 제일 먼저 의료 기관에 의료 제공 체제에 관하여 다시 한번 병상의 준비 등을 요청함과 동시에 현에서도 숙박 요양 시설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.

○그리고 현민 여러분, 사업자 여러분께 새로운 요청 및 당부 말씀드립니다.

○7월 이후, 본 현의 집단 감염 발생 시설은 25곳이었습니다. 그 중 '접대를 동반한 음식점', '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'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.

○현 내의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,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, 노래방 등은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엄수하고 감염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게시해 주십시오. 이때, 현에서 배부한 공통 스티커를 사용해 주십시오.



○또한, 오봉(お盆)을 포함한 8 월 8 일부터 21 일까지의 기간에는 이용객의 체재 시간을 2 시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.

○다음으로 휴업 협력에 관한 요청입니다. 확진자 수의 60%를 차지하는 후쿠오카 시내를 중심으로, 8 월 8 일부터 21 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조법 시행령이 정한 유흥 시설 중 '접대를 동반한 음식점', '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·노래방'에 대해,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가게는 휴업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.

○다음으로 모든 현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. 상기에 해당하는 가게를 이용할 경우,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가게의 이용은 삼가하십시오. 또한 8 월 8 일부터 21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가이드라인을 엄수하고 있는 가게라고 할지라도 이용 시간을 2 시간 이내로 하고 2 차, 3 차 모임은 삼가하십시오.

○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. '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것', '타인으로부터 전염되지 않는 것', '자신이 이미 감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'을 항상 인지하고 행동해 주십시오.

○감염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다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.

○현민 여러분, 사업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